

뉴스 & 뉴스

'맑고...' 하이텔 모임방 개설

맑고함기름계(회주 법정)가 최근 PC통신 하이텔에 모임방을 개설했다. 회원 유승호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설된 하이텔 맑고함기름계에는 앞으로 소식지(맑고함기름계)의 모든 내용이 제공된다. 또 회원가입과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사진으로도 접할 수 있다. 맑고함기름계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통신인들이 맑고함기름계의 자원봉사, 환경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맑고함기름계는 하이텔에서 go lotus로 들어가면 된다. 이은자 기자

'아침을 여는 집' 급식 중단

서울 서소문공원에서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해오던 경블린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 부설 '아침을 여는 집'이 철거된다. 아침을 여는 집은 중구청의 철거조치로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급식을 중단했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아침을 여는 집은 좁은 미군기지를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려오고 정부의 노숙자 보호시설인소정정책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재경 기자

정우성, 별빈징계 무효소송

조계종사태와 관련하여 별빈의 징계를 받은 정우성(서울포이동 구룡사 주지)이 5월 24일 법원위원회(위원장 공석)에 후계원 판결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정우성씨는 청구서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136회 총회(98년 12월)에서 후계위원을 선출한 것은 중한·중법 위배이며 △후계위원 중 중한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중추원장직의 직계인수 및 당사자들이 있어 심판의 공정을 해한다고 판단되며 △해고된 사실이 별빈 판결을 했으므로 새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기자

찬불가 내장 휴대폰 개발

삼성전자 개발과 찬불가가 내장된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을 개발해 화제다. 이말 말 시판 예정인 스마트폰은 등 국내에서 출간된 법요집의 불경과 찬불가를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절에 갈 때 따로 법요집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3년간의 연구기간과 55억원의 개발비, 1백 10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 이외에도 최대 2천명분의 주소록, 스케줄 1년치, 메모 1백건 등을 저장할 수 있고 8만단어의 영한사전, 5만 단어의 한영사전, 공학용 계산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지연 기자

김태복소장 징역 2년6월 '선고'

추징금 5천3백만원...교계 "불공정 재판" 강력 항의

군법당 건립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돼 종교연행대책위원회(위원장 원해·연진) 등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5월 26일 오후 대전 계룡대내 군사법원 소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소장에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종교연행대책위원회는 "김 소장이 법당 건립자금으로 받은 봉사 시주금을 뇌물로 보고 재판부가 판결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항의하는 한편 조계종 집행부와 중화 사회분과 위원회와 협의해 확대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교연행대책위는 5월 27일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내 공문에서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제기와 공명정대한 재판진행을 호소할 것을 약속해 재판부가 선고당시 공식적으로 '불공정의 부당한 압력행사' 운운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선암사 성보박물관 착공

지난 2월 잇따라 탕화를 도난당한 선암사(주지 인곡)가 숙원사업이었던 성보박물관을 착공했다. 5월초 터 다지기에 들어간 성보박물관은 연건평 120평 규모로 2층 전통목조 양식으로 건립된다. 성보박물관 1층은 수

장고, 2층은 전시실로 쓰여지며 완공되면 선암사 소장 문화재 1천2백여점이 보관될 예정이다. 2000년 5월 완공예정인 박물관의 건립예산은 16억원이 책정됐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nia.com)

지방승가대 인가요건 완화

조계종 교육원, 최소인원 30명서 10명으로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현재 30명이 하한선으로 되어 있는 지방승가대 인가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5월 26일 제4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승가대 인가요건을 낮추달라는 지난 4월 본사 주지회의 결의사항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의하고 다만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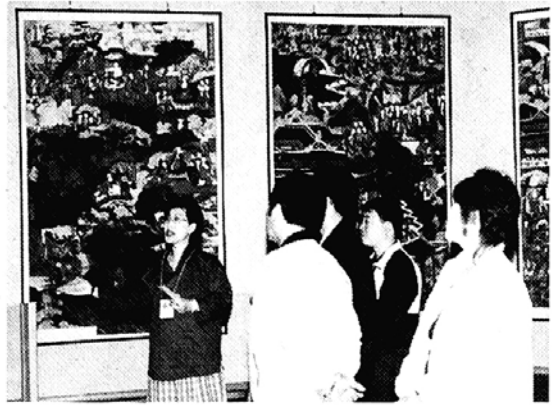
교육원은 사미니의 기본교육기관 입학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통후사 산내암자진 부도암과 양진암을 사미니 기초선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군법사의 4년이상 재직기간을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외국인을 위한 기초선원을 개설해 8만거를 성만하면 기본교육기관 이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이밖에 중산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교육기관 종합평가를 다음달 10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국내최대 남골당

영각사 영묘전

일부 준공 유골 안장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범)는 5월 30일 국내 최대 남골당인 '사원극락 영묘전'의 일부를 준공하고 3백여기의 유골을 안장하는 봉안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사원극락 영묘전은 연건평 2천 108평 규모로 지상전과 관세음보살을 봉안하고 지장전과 관세음보살을 봉안하는 관음전, 대웅전인 무량수전이다. 지하에는 유골 2만 5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일반 남골당이 들어선다. 이날 준공한 곳은 지하 남골당 중 유골 3천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특별단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인 이미터대(부부단)와 지장대(가족단), 그리고 무량수대(개인단)는 내년 5월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자원봉사자 김준자씨가 통도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들의 동아리 활동이다. 봉사단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 재정이 열악하듯 통도사박물관도 개관 전부터 학예연구원은 제쳐두고 관리요원 확보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500여명이 넘는 전시 공간과 이곳에 걸릴 불화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명의 경비 및 관리 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박물관의

“자정적 고민”을 일소시킨 것이다. 통도사박물관장 범하스님은 “자원봉사자들은 성보를 지키는 일선에서 활동한다는 자부심에 차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박물관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박물관 활동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유대감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통도사 성보지키는 문화봉사단 5백명

부산·울산·양산 주민들로 구성

6개월간 문화재 전문교육 이수

전시실 안내-유물관리 도맡아

“내 고장 성보는 내가 알리라.” 500명의 지역주민이 성보 문화재를 지키고 또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통도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관리·안내 업무를 도맡고 있는 ‘박물관자 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부산·울산·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총 26개조로 편성, 4월부터 매월 1회 조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려복식을 개량한 단복에 하얀색 명찰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통도사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성보문화재를 안내하고, 관람객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함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활동에 앞서 박물관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6개월간의 문화강

좌를 이수케 하였다. 이들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까지 김유식(국립경주박물관 연구관), 정영호(교원대 교수), 권영숙(부산대 교수) 등 문화재 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불교미술개론, 불화, 복식, 불교공예 등 19개 과목을 교육 받았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유적현장답사도 실시했다. 봉사단은 ‘준비된 성보지킴이’인 셈.

자원봉사자 김준자(43·주부)씨는 “6개월간 힘들게 배운 성보에 대한 지식을 관람객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보시공덕 그 자체”라며 “성보문화재를 아끼는 도반들과 심신을 다지고, 취미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봉사단은 또한 ‘합창반’ ‘다도반’ ‘꽃꽂이반’

불교소재 만화

국제만화페스티벌

우수상 받았다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한 만화가 국제 만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다. 99연·LG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류단희씨(중앙대 산악대 선악대 자인4)가 출품한 노스남과 고아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크리스마스’가 바로 화제의 작품이다.

엄마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고아소년인 정음과 그런 소년을 보살피는 노스남이 예수의 탄생일인 눈내리는 크리스마스날, 소년이 평소 갖고 싶었던 자신의 염주를 선물하는 과정을 통해 종교를 넘어선 따뜻한 인간애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종교를 초월한 대자대비한 사랑이 이 작품의 모티브”라고 설명하는 류씨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창작동기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자비의 죽비보내기운동

조계종 전국신도회, 7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매일할 때에도 사제간의 예의(상호간의 합장)가 있어 감정이 상하지 않고, 어께에 내리쳐도 안 아파서 좋다.”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사회적으로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는 스승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바람직한 스승상을 확립하려는 취지아래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 (가칭) ‘자비의 죽비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전신회는 각 종단의 종립학교부터 ‘자비의 죽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교육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하 지회 및 지부, 교계 단체 및 개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마다 자비의 죽비 갖추기’ 운동도 병

행할 예정이다. 전신회는 부회장단 50명에게 1백개씩의 죽비(개당 5천~1만원 예정)를 후원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5천여명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진규 회장은 “이 운동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교현사 남골당

건축허가 받아

자치단체와 남골당 건축허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경기도 광주 교현사(주지 헤가)가 사업 추진 9개월여만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광주군은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온 남골당 5m 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5월 18일

건축허락과 연관되어 스승과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이 캠페인의 취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아름다운 불교의 사제지정(師弟之情)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2543 禪의 향연 1999

-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안내 -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비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는 추위가 따스하게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매화 향기'를 찌르랴. -황벽선사

Table with 4 columns: Rank (1st-4th), Date, Participants, and Target Audience. 1st: 7/12-16, 30M/30F, 19-55yo experienced. 2nd: 7/19-23, 30M/30F, 19-55yo experienced. 3rd: 7/26-28, 200 students, elementary. 4th: 8/2-4, 100 students, middle/high school.

지원봉사자 - 수련경험자로 매 1차마다 5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 양식

Application form for the retreat, including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a section for the applicant's signature and date.

모집요강

- 1. A4용지에 좌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2.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회 소정의 심사료 선불합니다.
3.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마감일은 7월1일(목) 우체국 소인봉까지입니다. (1,2차에 한함)
5. 7월 5일(월)까지 참가자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1,2차에 한함)
6. 참가금은 1,2차는 7만원이고 3,4차는 2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면제)
7. 수련기간중 조식 108회,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8. 보낼곳: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대흥사)수련회
9. 문의처: 종무소 전화: 0634-534-5502, 5503
팩스: 0634-535-5357
온라인 : 농협 631039-51-013891 (예금주: 대흥사)
우체국 502716-0019095-11 (예금주: 대흥사)

※ 3, 4차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선착순마감) ※

대한불교조계종 제 22 교구본사 대둔사(대흥사) 주지 보선 합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도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넛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부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통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치면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약적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혈)에 차는 것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물이 더 며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 몸을 만드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 불규칙하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굵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